



2016 인천 경찰을 위한 조찬 기도회 열어

김치원 청장, “경찰은 책임감을 다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약속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표어 아래 인천지방경찰청 경무위원회(위원장 신용대 목사)는 지난달 31일(목) 오전 7시30분 베스트웨스턴 인천로얄호텔에서 2016년 인천 경찰을 위한 조찬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세연 목사(인천청 경무실장)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이종무 경정(인천청 경무계장)의 참석자 소개에 이어 신용대 목사(하늘꿈교회)는 환영사에서 “시민들의 안보와 평안을 위해 힘써 주시는 경찰이 되어 시민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인천시를 만들어 달라”며 주문했다.

따라서 이종호 감독(동인천 감리교회)의 대표기도, 문제산 장로(금곡성결교회)가 성경봉독(출 14:16-21)하고, 데릴라종창단(하늘꿈감리교회)의 특송, 전명구 감독(인천대은 감리교회)은 설교에서 “모세의 지팡이는 의지 할 수 있는 지팡이 같증 해소와 적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루어 주는 도구”였으며 “경찰은 민중과 시민을 범죄와 죄로부터 지켜 모두가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모세의 지팡이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당부했다.

이날 김치원 치안정감(인천청 청장)은 인사를 통해 “경찰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인천을 깨끗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 것을 약속했다. 따라서 이진영 목사(인천제2교회)의 축사, 손신철 목사(인천제일장로교회)의 격려사, 김치원 경찰청장(인천청 경무계장)의 참석자 소개에 이어 신용대 목사(하늘꿈교회)는 환영사에서 “시민들의 안보와 평안을 위해 힘써 주시는 경찰이 되어 시민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인천시를 만들어 달라”며 주문했다.

따라서 이종호 감독(동인천 감리교회)의 대표기도, 문제산 장로(금곡성결교회)가 성경봉독(출 14:16-21)하고, 데릴라종창단(하늘꿈감리교회)의 특송, 전명구 감독(인천대은 감리교회)은 설교에서 “모세의 지팡이는 의지 할 수 있는 지팡이 같증 해소와 적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루어 주는 도구”였으며 “경찰은 민중과 시민을 범죄와 죄로부터 지켜 모두가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모세의 지팡이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당부했다.

“삼백만 인천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서 세워진 청장님을 위하여 기다려 왔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주님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장님! 우리 인천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청장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청장님! 오늘 말씀처럼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삼백만 우리 인천시민을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청장님이 되게 하



여 주시고, 청장님이 생각할 때마다 우리 인천이 행복하고 기쁘고 든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행복의 지팡이 안전의 지팡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승리의 지팡이로 귀한 청장님 세워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고 했습니다. 삼백만 인천시민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세워진 청장님에게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안심이 되고 행복이 되고 자랑이 되는 인천이 될 수 있도록 귀한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이른 새벽에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마다 청장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불들어

주셔서 인천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안한 도시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청장님에게 더욱 큰 은혜와 능력이 되어서 행복한 도시 인천으로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우신 청장님을 강한 손으로 불들어주시고 능력의 지팡이로 사 용하여 주시고,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도시 한울에 깃든 정성과 인내를 생각하며....

약 24-25년 전쯤 필자가 목회하던 교회에 다니시던 집사님의 사진이다. 물론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 필자가 목회하던 지역이 세모시로 유명한 한산면과 인접해 있어서 그 때만 해도 이렇게 도시 길쌈을 하시는 할머님들이 많이 계셨다.

이미 여러 번 손질을 거친 모시 겹질을 가져다 치아로 가늘게 쪼개서 막대에 걸쳐놓고 한 올씩 뽑아서 무릎에다 비벼가면서 길게 연결을 하는데 그것을 길쌈이라고 한다. 물론 그 후에도 힘든

여러 작업과정을 거쳐서 한필의 모시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옷을 만든다.

모든 것이 기계화되고 자동화가 됨으로 인해서, 이쪽에서 재료를 넣으면 다른 한쪽에서 제품이 되어 나오는 세상.

그래서일까요? 현대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피로감이면 쉽고 편하게만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시간과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 봉사를 하거나, 어떤 단체에 매여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을 싫어하고, 심지어는 심

방을 오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그저 간섭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성도들이 점점 많아져 가는 것 같다. 물론 사람들의 삶의 형태나 가치관이 세월과 함께 변해가니까 무조건 옛날 것이 좋다고 주장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순수함과 정성과 인내가 배어있던 신앙생활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필자가 이 사진을 찍을 때만



해도 아직 사진의 초보였던 터라 필름 카메라로 서툴게 찍은 사진이지만 이 사진을 쉽게 버릴 수가 없는 이유는 아마도 옛것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사진작가 : 광관근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보수)총회 강도사 고시 및 여름제주수양회

주제 :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133:1)

총 회 장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고시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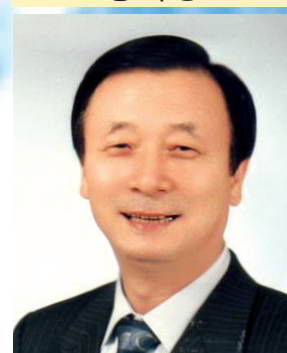
강대일 목사
(평안교회)

고시부서기



박유신 목사
(부산소망교회)

총 회 장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교육부장



전예희 목사
(신광교회)

교육부서기



김관호 목사
(세광교회)

총무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2016년 총회 강도사고시 공고

- 원서접수 : 2016년 4월 18일(월)우체국소인
- 시험일시 : 2016년 5월 12일(목)오전 11시
- 접수 및 시험장소 : 총회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가산동 동천교회)
- 제출서류 : 고시원서(총회) 1통 / 노회장 추천서 1통 / 신대원졸업증명서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사진(여권용) 3매 / 고시료 500,000원 입금증서

- 시험과목 : 교회사, 교회정치, 조직신학(주해설교)
주해 : 갈3:15-29(제목: 율법과 약속, A4용지 3매)
설교 : 살전 12-14(설교제목: 자유롭게, (A4용지 3매)
목회지원 신앙간증(A4용지 3매)
주해, 설교, 목회지원 신앙간증은 2016년 5월 5일까지 총회본부 접수
- 연락처 : 고시부장 강대일 목사 010-3919-5113
고시부서기 박유신 목사 010-2558-2538

2016년 목회자부부 여름제주수양회 공고

- 일시 : 2016년 5월 30일(월)~6월 1일(수)(2박3일)
- 장소 : 제주선교센터(수양관)
- 숙소 : 2인1실
- 회비 : 1인 150,000원
- 노회후원 : 200,000원
- 후원부탁 :
- 연락처 : 전예희 목사 010-7617-3331
김관호 목사 010-7788-0091

기독교신학사상검증학회, 신학포럼을 열고 “재림교회는 이단으로 볼 수 없다”

교계 대표적 초교파 신학단체가 그동안 이단 시비에 시달려왔던 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이하 재림교회)에 대한 재평가 연구 결과를 포럼을 통해 발표하였다.

(사)기독교신학사상검증학회는 3월 31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0차 비평과 논란 신학포럼'에서 재림교회에 대해 이단으로 볼 수 없는 복음주의 기독교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회 측은 이 성명에서 “재림교회는 일반 개신교회와는 차별되는 교리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이단으로 규정할만한 결정적인 요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교계의 이런 움직임은 무분별한 이단 양산과 그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객관적 연구결과여서 더욱 의미 깊다는 평가다.

이번 ‘재림교회 재평가’ 활동에는 <비평과 논란> 발행인 김경직

박사를 비롯해 교계 대표적 신학자 13명이 연구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약 30개월 동안 재림교회의 신학적인 교리를 심도 깊게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 재림교회에 대한 한국 교계의 일반적 평가가 상당 부분 오해되고, 곡해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하였다.

학회는 ▲재림교회가 세계적인 조직을 가진 건실한 교단인 점 ▲기독교와 관련된 국제적인 공공관들이 재림교회를 정통 기독교로 인정하는 점 ▲이단 규정 시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점 ▲재림교회의 이단성 여부는 이미 오래 전에 연구되었고 발표된 점 등의 근거를 들어 재림교회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하였다.

학회는 “재림교회는 한국에서 발생한 신을 개신교가 아니라 15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세계화된 복음주의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이단 여부를 한국의 어느 한 특

정인과 교단이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단으로 규정할 수 있는 교단이 아니”라고 전했다.

또한 “그들의 신학체계가 교리의 구조는 성경에 충실한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일반 개신교 교리와 차별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그러므로 재림교회의 이단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여러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 재림교회에 대한 이단 규정은 재림교회에 대한 충분한 지식 이 없는 소수 이단 감별사들의 일방적인 연구와 주장에 따라 결정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독교에서 이단은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 따르한 지적

한편, 포럼에서는 김대성 목사(재림교단 전 한국연합회장), 행크

해나그래프 박사(미국 기독교리서치연구소 대표), 버나드 구박사(국제복음주의신학회 총재, 플러신학대학원 선교학 교수 역임, 골든빌대학교 총장)가 포럼에서 공개강연을 했다.

김대성 목사는 “한국 기독교에서 이단은 대체로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이단은 힘에 의해 달라지는 게 아니”라며 대형 교단에 의해 소수 교단이 이단으로 매도되는 한국 기독교의 비뚤어진 행태를 비판했다.

김 목사는 “이단 규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이를 교단별로 규정하지 말고,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전 개신교회가 공동 대처하자”고 촉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4개 항의 이단 관련 문제 해법을 공개 제안했다.

“본질이 아닌, 부차적 문제로 이단 규정 안될 말”

행크 해나그래프 박사(미국 기독교리서치연구소 대표)는 이단 분별



에 대한 견해를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문제(Essential Issue, Primary Matter)’와 ‘비본질적 문제(Non-Essential Issue, Secondary Matter)’로 나눠 접근했다.

행크 박사는 ‘예수의 신성’ ‘인간의 원죄’ ‘창조’ ‘삼위일체’ ‘부활’ ‘그리스도의 성육신’ ‘지구의 재창조’ ‘종말론(예수 재림)’ 등을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문제로 꼽고 “본질에 대해서는 모두 연합된 입장을 가져야 하지만,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를 자유롭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제반 문제를 다룰 때는 피차간에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대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림교회가 이야기하는 신

앙적 가르침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진리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들과 어께를 나란히 할 수 있다. 본질이 아닌, 부차적인 문제로 어떤 단체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불공평하다. 더욱이 특정 교단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건 매우 조심해야 하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계했다.

버나드 구박사(국제복음주의신학회 총재, 플러신학대학원 선교학 교수 역임, 골든빌대학교 총장)는 재림교회 세계적 방송선교 매체인 ‘호프채널’(Hope Channel)을 소개하면서 “죽어가는 기독교계를 심도 있게 깨우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채널이다. 매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또한

자신의 캘리포니아 파사디나 집 인근에 있는 재림교회에서는 “매주 토요일만 되면 엄청난 ‘축제’-말씀의 잔치-가 벌어진다. 아주 훈훈하다. 미국의 텅 빈 어느 교회와는 다르다”면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이라고 감사했다.

구 박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며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재림교회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한다”고 축원하며 강연을 마쳤다.

기독교신학사상검증학회는 포럼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대방동 공군회관 2층 회의실에서 공개 실행위원회를 열고 “재림교회는 현재의 시점에서 이단으로 볼 수 없으며 성서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학회는 이 자리에서 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와 교단에 대한 검증결과 및 이단성 문제 등에 대한 가부를 자유 투표한 결과 실행위원 13명 전원 찬성에 의해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볼 수 없음을 의결했다.

포럼을 주최한 <비평과 논란> 발행인 김경직 박사는 포럼을 마치며 “재림교회는 한국 교계로부터 ‘반칙’도 모자라 이단 사냥꾼들에 의해 ‘테러’를 당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었나”라고 반문하고 “한국 교회는 각성해야 한다. 재림교회는 현재의 시점에서 이단으로 규정할 성경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제철 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재평가 결과 이단 아닌 복음주의의 기독교임이 밝혀져

본 사단법인 기독교신학사상검증학회는 한국교회의 무분별한 이단 양산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는 마음으로 연구에 착수하였다. 그 동안 명확한 절차나 충분한 연구과정 없이 한 교단의 일방적인 이단 규정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나 교단들을 검토하였으며 해당자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이하 재림교회)도 그 중의 한 교단임을 밝혀내고 약 30개월에 걸친 연구를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재림교회는 일반 개신교회와는 차별되는 교리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이단으로 규정할만한 결정적인 요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학회는 위원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재림교회에 대한 학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는 바이다.

1. 재림교회는 세계적인 조직을 가진 건실한 기독교 교단이다.

재림교회는 1860년 미국에서 발생하여 지금까지 약 155년에 걸쳐서 전 세계 216개국에 복음을 전파한 기독교 교파이며 현재 약 1,850만 명의 교인과 148,000여 개의 교회를 통하여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건실한 기독교 교파이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한국 교계에서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밝혀졌고, 이는 한국 개신교회가 세계 개신교회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판단된다. 이에 본 학회는 우선 한국 개신교회가 이단을 규정함에 있어서 세계 기독교와 어느 정도 통일된 견해를 가져야 할 것을 촉구한다.

2. 기독교와 관련된 공공관들이 재림교회를 정통 기독교로 인정하고 있다.

본 연구팀의 연구 과정에서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기독교와 관련된 세계의 공신력 있는 단체들이 재림교회를 정통 기독교로 인정하고 있다. 장로교 통합측 장로로서 여운사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던 김경선 장로가 1966년도에 재림교회를 연구하면서 세계 기독교 공

관들에게 재림교회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어 받은 회신들에 의하면, 영국성서교회, 미국성서교회, 빌리그레이엄복음전도협회, 미국복음주의루터교회, 세계루터교연합, 국제복음주의신학회 등에서는, ‘재림교회가 일반 개신교와 다른 교리적 내용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세계적인 기독교 교회들의 공동체의 일원 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

3.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이 재림교회가 세계적으로는 정통 기독교로 인정받고 있는데, 1995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모 교단측 80차 총회에서는 자체 연구에만 기초하여 재림교회를 일방적으로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그 여파로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은 자체 연구도 없이 장로교 모 교단측의 결의를 가지고 재림교회를 이단시하는 풍조가 편만하게 되었고 재림교회는 그 결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발행한 <이단 사이버 규정>(2013년)에 의하면, “혐의자들의 교리서, 설교, 성경공부, 강의, 영상, 기사, 서적, 증인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반드시 오심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본인 소환을 하여 소명기회를 주고 충분한 주장을 하여 피차 후한과 억울함이 없도록 한다”(p.15)고 되어 있으나, 모 교단측은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할 때에 당사자의 의견은 전혀 들어본 바가 없다. 재림교회 측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질의서를 기독교 7개 신민들에게 재하였으나 질의를 받은 당사자인 모 교단측 교단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4. 재림교회의 이단성 여부는 이미 오래 전에 연구되었고 발표되었다.

재림교회의 이단성 여부를 가장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오랜 기간 연구한 학자는 세계적인 비교종교학자 월터 마틴(Walter R. Martin) 박사(CRI-미국 기독교리서치연구소 대표

역임)이다. 그는 1955년 비교종교학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재림교회의 방대한 문서들을 7년간 살피면서 치밀한 연구를 하였고, 그 결론을 ‘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 대한 진실’(The Truth About the Severth-day Adventism)이라는 책자로 발행하였다. 그 책의 내용 중에는,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 개신교회와 차별된 교리를 상세하게 분석한 결과, 그러한 내용들은 이단으로 규정할만한 본질적인 요소들이 아니며, 재림교회의 전반적인 교리 체계는 ‘본질적으로 정통 교리’(p.236)이며, 그들의 교리는 “통일된 기독교 교리의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p.239)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그들에게 비록 교리적 상이점은 있지만 “그들은 신실하고 성실한 동료 그리스도인들”(p.236)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5. 본 기독교신학사상검증학회는 재림교회를 정통 기독교로 인정한다.

본 학회가 약 30개월에 걸쳐서 재림교회의 가르침과 교리들을 분석하고 연구 한 결과, 재림교회에 대한 한국 개신교회들의 일반적인 관념은 상당 부분 오해되고 곡해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우선, 재림교회는 한국에서 발생한 신흥 개신교가 아니라 15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세계화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이단 여부를 한국의 어느 한 특정 교단이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단으로 규정할 수 있는 교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학체계가 교리의 구조는 성경에 충실한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일반 개신교 교리와 차별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재림교회의 이단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러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에 재림교회에 대한 이단 규정은 재림교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소수 이단 감별사들의 일방적인 연구와 주장에 따라 결정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본 학회는 재림교회를 정통 기독교로 인정함과 동시에, 이후로 재림교회는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울타리를 벗어나 개신교회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서로 오해된 부분들을 풀어가면서 함께 협력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3월 31일
사단법인 기독교신학사상검증학회

꿈대로 이루어지는 목포 꿈의교회 이요셉 목사

서해 고속도로 끝자락 목포 항구도시 초입 원권에 아름답고 웅장하게 우뚝 솟은 꿈의교회(담임 이요셉 목사), 청정해역과 숲이 우거진 산과 아파트, 빌딩 숲으로 경관이 빼어난 중심지에 자리한 교회, 영혼구원을 위하여 사람 낚는 어장으로 성장되는 교회, 이를 지켜보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고 생각하니 감사하는 마음뿐이다.

그토록 만나 뵈고 싶었던 꿈의교회 담임 이요셉 목사, 처음 뵈는 이목사는 포근한 이미지와 지성과 인격을 두루 갖춘 분임을 알 수 있다. 꿈의교회는 1989년 6월에 설립되어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으로 1994년 1차 성전건축을 한 후 2014년 10월에 2차 성전건축으로 꿈대로 이루어진 교회이다.

이요셉 목사는 꿈이 없는 사람에게 꿈을 심어 주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는 소망과 능력을, 행복과 기쁨을 넘치게 하는데 있으며 이를 목적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크고 놀라운 꿈을 갖게 하고, 행복한 꿈, 위대한 꿈을 심어 주고, 그로 인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방황했던 삶이 종식되고 순풍을 만난 배처럼 인생의 항해를 순항하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영혼구

원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이요셉 목사이다.

목포 꿈의 교회의 성장은 꿈과 목표가 분명했다.

이요셉 목사는 꿈과 목표가 분명하다. 그는 오직 주님위해 죽고 주님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길 외에는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꿈의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로서 소망하고 달려가고 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육신과 마음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꿈의 교회의 비전은 3만 명의 셀 리더를 세우고, 3천개의 교회, 1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세계 복음화의 영혼구원에 불타는 교회라고 했다. 또한 병든 육신이 치유 받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무너진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걱정과 근심 대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초대교회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라면서 반듯이 꿈대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뜨거운 열정이 용광로와 같이 끓고 있는 꿈의교회 이요셉 목사는 본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목포 성시화를 위하여 민족복음화와 영혼구원



의 힘쓰고 있는 가운데, 목포권 기독교연합회 부회장과 초대교회 영성회복운동본부 총재를 맡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기관, 단체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요셉 목사는 덕망 높은 목회자로 명성이 나 있고 꿈과 목표가 분명하다.

꿈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예수안 믿는 자들을 전도해'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아픈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건강이 좋아지자 3년 동안 병원과 약국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 왔다. 그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교회는 소문이 나고 놀랍도록 부흥되었다. 98년 7월 26일(주일) 오전 11시 예배 중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자 예배가 오후 4시까지 5시간동안 드러졌는데 한 사람도 밖으로 나가는 이가 없었고 화장실 가는 이가 없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이처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제자훈련과 강해설교로 강하게 훈련을 시켜왔다. 하지만 머린만 커졌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교회성장의 포커스는 '영혼구원에 있어'

주님이 이 땅위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영혼구원이며, 적게는 목포의 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주력할 것을 깨닫고 다짐했다. 교회가 전도중심, 선교지향적인 교회로서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는데 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포커스는 영혼구원이며 곳곳에 지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비전을 갖고 영혼구원을 위하여 불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꿈의 교회 이요셉 목사이다.

잠자는 교회와 시대를 깨우는 초대교회의 영성이 회복돼야

잡자고 있는 교회가 너무 많다. 시대를 깨우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한다. 교회와 시대가 침체되어 있는 이 시대에 초대교회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교회가 성령과 사랑이 충만하여 말씀으로 깨우치고 일꾼을 키워야 한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 주님의 하신 일을 몸소 실천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

고, 교회적으로는 전도중심, 선교지향적인 교회로서 최악 된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선이 되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 역시 예수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데 있다. 그리고 교회성장의 비결은 오직 성령운동이요, 영성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삼위일체가 같이 되었을 때 온전히 균형 잡힌 영성이 회복되는 일이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잠을 자고 침체된 원인은 한국교회의 성자인 기도의 동산 삼각산에 입산금지령 내리자 이로 인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던 기도, 한국교회와 국가의 안녕과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도의 외침이 멈추어졌다. 그 결과 IMF로 국가의 위기가 닥쳐왔고, 한국교회가 침체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회복하려면 초대교회의 영성회복운동이 불같이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엄청난 핍박으로 인해 최악의 상태에서도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고 톰으로 작두로 거꾸로 십자가에서 순교하기까지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오순절 성령강림의 역사가 반복되고 재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는 길은 기도의 불길이 점화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길 외에는 없다면서 조용히 기자의 손을 잡으며 기도로 인터뷰를 마친다.

목포 꿈의 교회 성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모범적이며 열정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순종을 다하는 순수한 점이 자랑스럽고 항구도시 목포에서도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다. 목포에서도 꼭 가고 싶은 교회, 만나보고 싶은 목사하면 꿈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꿈의 교회 당회장 이요셉 목사이다.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이다.

편집국장 정기남(jntvcpj@naver.com)

기도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꿈의교회



개척하면서부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전도하는데 있었다. 꿈의 교회는 80% 이상이 예수를 믿지 않은 2000~3000명의 사람들이 전도되었고, 폭발적인 교회의 성장은 매일 새벽, 오후, 저녁, 철야 등 4번의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고, 금요일아침에는 찬양과 말씀, 기도를 통해 식어졌던 신앙이 회복되고, 심령과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어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성도들의 다짐은 주님을 닮아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는 것이며, 성도들은 이 목사와 같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뜨거운 교회, 은혜가 가득한 교회, 든든히 서 가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로 급성장을 이루고 있다.

교회성장의 원인은 "6시간 이상 기도와 전도로 치유의 역사나타나"

전남 신안이 고향인 이요셉 목사는 8개의 교회를 설립하였고, 오늘의 꿈의 교회가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루 6시간 기도와 3시간 이상 성경을 읽고 전도하는 일 외에는 없었다. 그러자 성도들의

영광교회 조강수 목사 2016년 4월~5월 집회일정

영광교회 축복 대성회에 초청합니다

〈4월집회〉

- 4월 4일(월)~4월 7일(목) 청주금식수양관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1길 43
전화: 043-269-5211
- 4월 10일(주일) 지역주민을 위한 전도축제
- 4월 11일(월)~4월 14일(목) 충주금식기도원
주소: 충북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573번지
전화: 043-853-3990
- 4월 17일(주일) 어르신들 사도신경암송대회
- 4월 18일(월)~4월 20일(수) 인천민음교회
- 4월 25일(월)~4월 27일(수) 청주생명성교회

〈5월집회〉

- 5월 2일(월)~5월 4일(수) 소진우 목사 초청 성회
- 5월 6일(금) 철야 광은기도원
- 5월 9일(월)~5월 12일(목) 광은기도원
- 5월 23일(월)~5월 26일(목) 양평금식기도원
- 5월 29일(주일저녁)~5월 31일(화) 서울베데스다교회



강사 조강수 목사

연료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지저스타임즈 이사장
영광교회 담임목사



복음의 발상지 인천에서 제12차 십자가대행진 가져 인천광역시를 성시화로 목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자

인천기독교 목회자 총연합회는 지난 3월25일(금) 오전 11시 인천광역시 남구 옛 시민회관빌터 공원에서 350여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제 12차 십자가대행진 행사를 가졌다.

한태영 목사(은혜로평강교회)의 인도로 진행된 고난주간 십자가 대행진에 앞서 예배를 시작하고, 조종찬 목사(함께하는교회)의 기도, 강애자 선교사(돌보미집 간사)는 성경봉독(사 53:4-6절) 하고, 인천영광교회 험시바찬양단의 찬양으로 이곳을 지나던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등 은혜를 끼쳤다.

인기목 대표회장 조강수 목사(영광교회/지저스타임즈 이사장)는 말씀을 통해 예수그리스도께서 성금요일인 오늘 12제자 중 한사람인 가롯 유다에 의해 삼십 세겔에 팔려 해롯왕의 손에 넘겨졌으며,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신 날이라고 전하고, 우리는 십자가 대행진을 통하여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항기로운 목회자 성도가 되자며 설교했다.

이어 고난 다음에 부활의 축복에 대하여 김숙초 목사, 신앙 회복을 위하여 전상선 장로, 살기 좋은 나라, 경제회복



을 위하여 조영규 목사, 인천 성시화를 위하여 김영희 목사, 십자가 행진, 자부심과, 긍지를 위하여 김천국 목사, 통성기도에 이어 김문순 목사(함께하는교회)가 성시당독을, 서초원 목사(벨엘교회)는 3.2Km를 십자가대행진을 한다는 광고 후 권장석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십자가대행진은 12시 20분에 출발하여 구 시민공원 쉼터 사거리를 지나 풍길동 사거리, 논현동 사거리, 인천 기계공고, 재래시장을 통과해 옛 시민

회관 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대행진을 진행하면서 대표회장 조강수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을 외치며 다함께 구원받자고 외쳤으며, 영광교회 험시바찬양단은 찬양으로 역광을 돌리면서 행진을 했다.

십자가대행진을 마친 후 옛시민공원 쉼터로 돌아온 인천기독교 목회자 총연합회는 2부 순서로 이흥희 목사(거룩한축복교회)의 사회로 진행되어 이훈구 목사(길정감리교회)가 대표기도를, 박영국 전도사(천국교회)가 성경봉독을, 황귀례 목사(열방사랑교회)가 설교했다. 이어 최봉숙 목사(은혜로운교회)가 특송을, 아울러 제목기도에는 주님만 바라보자 황선영 목사,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기 위하여 이기쁨 목사, 인기목 부흥사회의회를 위하여 이현주 목사, 목회자가 하나 되기 위하여 김순숙 목사, 가서 제자 삼아와 환찬호 목사가 각각 기도에 나섰으며, 강풍희 목사(순복음벨엘교회)의 식사기도, 최병현 목사의 축도 순으로 예배와 행사를 마쳤다.

인기목 십자가대행진은 12년 전 박무평 목사에 의해 시작되어 장애인 의 몸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날 인천 박우섭 남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은 서면을 통해 축하를 전했다. 이번 십자가대행진은 인천기독교 목회자 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십자가행진 목회자연맹회 주관과 사람의 집 고쳐주기 운동본부 협찬했으며, 인기목 대표회장 조강수 목사(영광교회 지저스타임즈 이사장)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비즌 떡과 김밥, 음료수 등으로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부족하지 않게 대접했다.



목포꿈의교회 조강수목사 초청 ‘치유역사로 큰 감동’

기도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목포 꿈의교회(당회장 이요셉 목사)는 인천영광교회 담임 조강수 목사를 초청하여 고난주간인 지난 3월 20(주일)~23일(수)저녁까지 특별성회를 열어 매 시간마다 강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과 안수기도를 통하여 많은 환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드렸다.

꿈의교회 이요셉 목사는 ‘말로만 들어왔던 조강수 목사님을 고난주간을 맞아 특별성회 강사로 초청하게 되었는데, 강사님은 정말 주님만을 전적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놀라운 것은 많은 환자들이 치유되었고, 마음에 상처 받은 이들이 치유 받고 신앙생활의 회복이 되었다. 이번 특별성회를 통해 성도들이 강사님의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에 강력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며 고백을 하고 강사님처럼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강력한 믿음이 심어졌다’며 성회결과에 대해 말했다.

특별성회 둘째 날 저녁 본 교회 이요셉 목사의 인도로 신 8:2~3절을 봉독하고 강사를 소개하자, 조강수 목사는 “말씀의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날 많은 환자가 줄을 서서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고 기다리는데 강사 조강수 목사는 설교 중 이들을 향해 다가와 허리 디스크, 골다공증, 갑상선, 뇌졸중(중풍), 담석증, 암환자, 소경, 귀머거리 등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자 많은 환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드렸다. 이미 전날 저녁에도 500여 명이 안수기도를 받고 치유함을 받았고, 이 소식이 퍼지자 더 많은 성도들과 환자들이 몰려들었다.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성회 중 전혀 듣지 못했던 20대 처녀가 안수를 받고 귀가 열려 강사 뒤에서 말한 음성을 다 알아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또한 이번 특별성회를 통하여 성도들은 그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강력한 도전을 받았으며 자신을 또한 강사님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과 하나님



은 정말 살아 계신다는 확신이 강력하게 일어났다.

꿈의교회 담임 이요셉 목사는 집회를 위하여 이른 강사를 국내외적으로 초청하여 집회를 해 왔지만 이번 성회처럼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신 것은 없었다고 한다. 조강수 목사님은 정말 순수하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 믿음의 말씀에 놀람도록 도전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많은 환자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더욱 놀라운 것은 본 교회 모 집사의 가족이 하반신을 쓰지 못해 휠체어에 의지하고 살고 있고 모 요양시설에 있는

이 따로 없다. 오직 성전 강단에 엮드려 4시간 - 5시간을 기도하고 새벽예배를 인도하면서 성도들을 사랑한다. 조 목사는 과거에 너무도 배가 고프는 목회를 해 왔기에 배고픈 이들을 위하여 4~500명이 넘는 노인들을 모시고 주일예배 후에 식사를 대접하고 돌아가는 노인들에게 3000원이 든 봉투를 일일이 챙겨드리고 또한 매주 목.금.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때로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국수와 밥을 지어 대접하는 등 인천지역에서 영광교회와 조강수 목사는 소문이 났다. 이 많은 노인들을 섬기는 일에 많은 재정이 지원되고 있고, 부족한 재정과 선물 조달

얇은뱅이가 일어나고 소경과 귀가 열리고 많은 환자들 치유의 역사

데 집회기간 휠체어를 타고 가족인 집사의 인도를 받아 성회에 참석하고 강사로부터 안수를 받고 전혀 감각이 없었던 하반신에 신경세포가 살아나 감각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면서 감각이 없었던 다리가 펴지고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자 성도들 모두가 하나같이 영광의 박수를 드리면서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목포 꿈의교회가 성회를 통해 축제의 장을 이루었다.

강사 조강수 목사(영광교회)는 집회를 인도하는 곳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 도중에도 환자를 불러 세우고 안수를 하면 치유함을 받고 역사가 일어났으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안수를 받고 질병에서 해방되고 치유되었다. 조강수 목사는 집회를 인도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소리치지 않고 조용하다. 안수를 하는데 있어서도 요란하지 않고 힘 안드리고 손대고 짧게 기도만 하는데도 귀머거리가 열리고, 얇은뱅이가 일어나고 암병이 떠나가는 등 수 많은 환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있다.

조강수 목사는 1년 365일 잠자는 방

은 부흥집회를 인도하고 받은 사례비를 몽땅 내놓기 때문에 가능하다.

인천영광교회와 담임 조강수 목사는 개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4~5백명의 목회자를 초청 대접하며 교통비와 쌀을 제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다. 그러면서 조강수 목사는 문서선교를 통하여 신문과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고, 언론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또한 영광교회는 4월 17일(주일) 지역 어르신 초청 사도신경암송대회를 가지며 4월 21일(목)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하고 특별강사는 목포꿈의교회 이요셉 목사, 영광교회 조강수 목사이며, 이날 중식 및 쌀 1포(5kg)를 제공하고, 5월 2일(월)~5월4일(수)저녁까지 분지 사장 소진우 목사(예복교회)를 강사로 부흥성회를 갖는다.

한편 목포꿈의교회 이요셉 목사는 오는 7월 3일(주일)저녁부터 6일(수)저녁까지 조강수 목사를 강사로 초청 부흥성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전국 목회자 세미나



〈 강 사 〉

조강수목사
인천영광교회담임

개척교회3년 동안

성도 한명도 없어서 집사람, 나, 아들 셋이서 꼬챙이처럼 말라갈 때에 아는 분이 수박한통을 들고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얼마나 그 수박이 맛있었던지, 그 사람이 하나님 같았습니다. 수박하나의 힘으로 며칠을 버텼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금번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목사님들에게 5kg의 작은 쌀 한포를 준비했습니다. 수박한통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듯이 쌀 한포가 목사님의 목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 강 사 〉

이요셉목사
목포꿈의교회담임

- 집회시간 : 2106년 4월 21일(목) 오전11시~오후 3시- 중식 및 쌀 1포(5kg)제공
- 장 소 : 인천영광교회(032-575-1654) <http://www.youngkwang.net>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336 (구)가좌4동 4-24